

연중 제 11 주일 나해

화답송

시편 92(91), 2-3, 13-14, 15-16

(후렴) 주님,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.

1.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 - 다.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, 당신이름 찬송하 나 이 다.
2.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 지 - 고,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 나 리 라.
3. 늙어서도 열매 맺 - 고, 물이 올라 싱싱 하 리 라.

아침에는 당신 자애 - 를, 밤에는 당신진실을 알리 나 이 다.
 주님의 집에 심 - 겨,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 지 리 라.
 불의가 없는 나의 반 - 석, 주님이 울곧으심을 널리 알리 리 - 라.

알렐루야

(후렴)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- 야

씨앗은 씨 뿌리는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.
 하느님의 말 - 씬, 이는 그리스도 이 시 니,